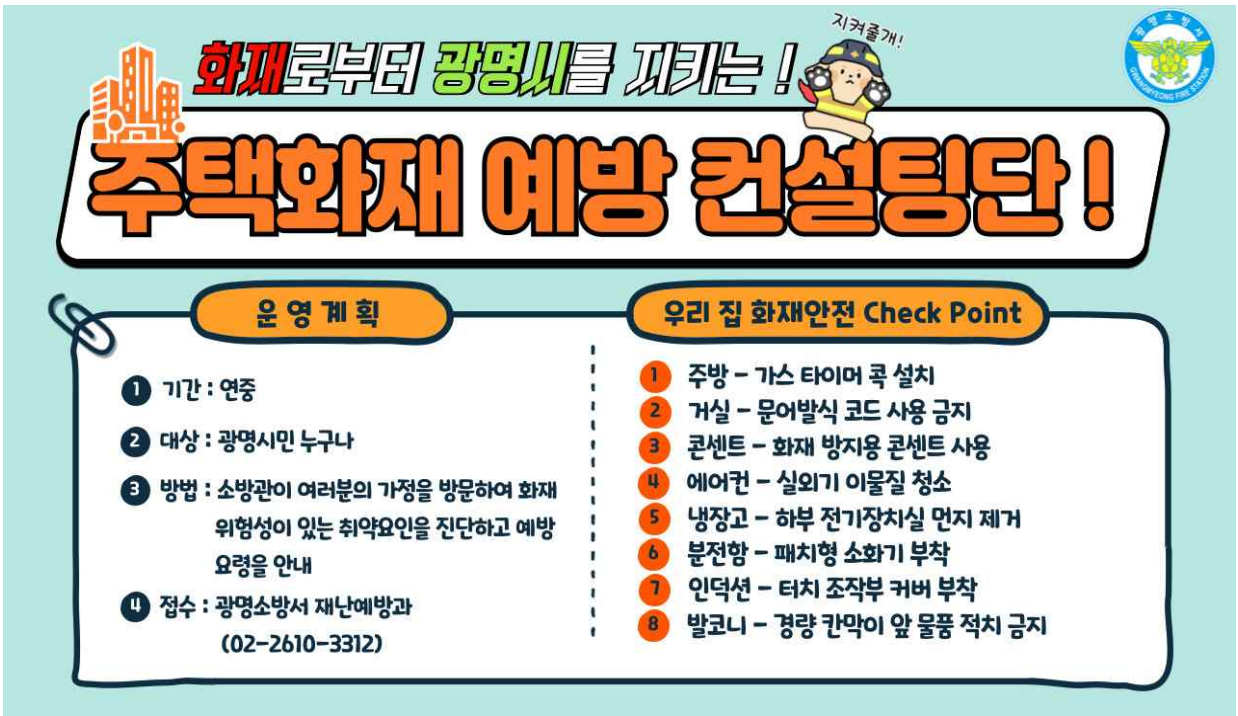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3.15.(금)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	팀 장	송영호 (02-2610-3310)
		담당자	심준연 (02-2610-3311)

광명소방, 연립 · 다세대주택 화재예방 '팔 걷었다'

○ 연립·다세대주택 화재취약지역 사각지대를 파해친다!



광명소방서는 연립·다세대주택의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발생 통계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화재는 193건이며 연립·다세대 화재는 59건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는 총 21명이며 연립·다세대에서의 인명피해는 5명으로 23.8.%로 다소 높은 피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일경 목감로 빌라 화재로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2천5백여만원이 발생 사건 이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대책이 주로 아파트 위주로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우리집 화재안전 인테리어 시책 ▲주민생활 밀접시설을 활용 체크포인트 보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화재 예방 컨설팅단 운영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 추진 계획이다.

박평재 소방서장은 “이번 추진대책은 화재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이다.”며 “적극적인 소방정책과 활동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